



2013

6

마산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

통권 제342호

발행 : 우용태 010-9301-2223 / 총무 : 김석백 011-488-9871

편집:제갈선광 010-5146-4925 / mail : chegal44@gmail.com



우륵(于勒)의 발자취 / 정영기

소년시절 학교에서,
우리 역사상 3대 樂聖의
한 분인
우륵(于勒)에 관해
배울 때, 가야(伽倻)의
숫자는 금관가야(김해),
대가야(고령) 등을
포함해 6가야라 했는데,
우륵은 그냥
가야 사람이었다.
어느 가야 사람일까?

사학자도 아닌 내가 이 방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아주 소싯적에 들은 이야기가 우륵의 출신지 규명에 분명한 자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나중 어느 책은 가야의 수가 12개도 넘을 거라 했다. 크고 작은 세력들이 오랜 세월 서로 충돌하고 부침하는 중에 어떤 것은 일찍 사라졌거나 강자에 예속되어, 사서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약소 가야들이 있었을 것이다. 옛 가야지역에서 발굴된 유적들 중에는, 실체는 불분명하나 왕이나 왕국의 존재를 가늠케 하는 유적들이 많은 걸 보면, 여러 나라들의 실재를 짐작케 한다.

우륵이 어느 곳 사람이었건, 그의 예술활동은 가야전역에 걸쳤을 것이다. 그런 기록이 우리 역사 최고사서인 삼국사기에 나온다. ‘옛 신라의 기록에 의하면, 성열현(省熱縣) 사람 악사 우륵이 가야국 가실 왕의 명을 받아 12곡을 지었는데, 그 까닭은 각국(各國)의 방언(方言)이 달라 음악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다.’ 라는 기록이다.

각국의 노래를 새로 짓거나 기존 음곡을 표준어로 정리한다 해도, 나라마다 다른 언어관습이나 환경과 정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답사와 체득은 예술인이 고행을 무릅쓰고 자



청하는 의무일 것임에, 우륵 또한 예외일 수 없었을 것이다.

위에 말한 가실 왕은 고려의 대가야 왕이었다. 그런데, 왜 기록은 그의 나라를 대가야라 하지 않고 그냥 ‘가야국’ 이라고 했을까? 가야시대 전기에는 금관가야가 강국이었지만, 후기에는 대가야가 최강의 가야로 여러 가야국들의 상국(上國)이자, 가야 전체를 하나로 결속한 가야연맹의 맹주였다. 나중에 대가야의 멸망은 모든 가야국들의 소멸이자 가야시대의 끝이었다. 그래서 가야 전체를 통일한 신라의 시각에서, 가야연맹은 하나의 ‘가야국’ 이었고, 12곡을 지을 때 각국이라 말한 여러 가야들은 ‘가야국’ 내의 지방에 해당하는 군이나 현의 이름이 주어졌을 것으로, 우륵의 고향 성열현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이제 궁금한 것은 가야의 숫자가 아니라, 위의 기록이 말하듯 우륵은 성열현 사람인데, 성열현은 오늘날의 어디일까? 오늘날의 문학이 옛 선인들의 포괄적 시서(詩書)가무음곡의 세분에서 비롯된 것임에, 전반적이고 전인적 예술가라 할 우륵의 탄생지는 현대의 문학에서 관심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최근 여러 학자들의 연구로 성열현이 현재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新反)리로 수렴되고 있음을 보고, 문득 이곳에서 가까운 ‘우르리’ 라는 지명이 떠올라, 우륵과 연관된 장소의 하나일 것으로 연구자들의 검토를 받고자 한다. 옛날에 ‘우륵(于勒)리’ 던 것이 ‘우르리’ 로 변음 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르리는 현재 지명 적포(赤布)보다 더 많이 불려지는 토속지명이다. 신반(新反)에서 동쪽으로 20리 이내인 낙동강 변의 필재라는 작은 고개를 포함하는 강 마을인데, 의령-합천 군계(郡界)의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의 적포교(赤布橋) 다리 근처를 말한다.

우르리는 풍광이 좋은 곳이다. 인근에 많은 얇은 시냇물과는 달리, 이곳 강은 깊고 유장하다. 다리를 기점으로, 합천으로 진입하는

한 쪽 강변은 절벽 형상이며, 맑고 깊은 강심에 흐름이 잔잔하여 호면(湖面)을 연상케 한다. 한적한 곳이지만 부근에선 드문 경승지의 하나다. 다리 건너 넓은 백사장은 여름 청과의 집산지이고, 각종 철새들이 도래하는 곳으로, 옛 시문에서 즐겨 쓴 낙안(落雁)의 평사(平沙)는 이런 곳을 말할 것이다.

일반 교과서에는 우륵에 대해, ‘우륵의 가야금’ 또는 ‘가야금의 우륵’ 정도로 기술이 간략하여 오늘날의 한정된 장르의 연주가로 인식하기 쉽지만, 우륵은 시가와 음악에 더해 춤사위를 창안하고 안무한 무용가이기도 했다. 이런 기록도 삼국사기에 나온다.

시정(詩情)이 넘치는 젊은 우륵은 걱정과 도취의 면모도 많았을 것이다. 때로는 사색에 잠긴 고적한 시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인이나 재사들로 더불어, 이곳 우르리 같이 여유롭고 운치 있는 강나루를 찾아 자적(自適)과 선유(船遊)를 즐기며 눈에 띄는 풍류의 행적을 남겼을 것임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륵과 그의 재인들이 자주 찾는 이곳을 우륵(于勒)리로 불렀거나, 상국의 왕이 부를 만큼 유명인이 되었을 때 강물을 조망하는 고처(高處)에 누대(樓臺)나 정자(亭子) 같은 것을 둔 탓에 우륵정(于勒亭)이 있는 곳을 우륵리로 부르다가 나중에 우르리로 변음 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곳 출신 고(故) 노(盧)재증씨는 앞서 말한 필재고개를 우륵재라 하였다. 소년시절 필자를 다리 앞에 세워놓고, 동판에 새겨진 다리 이름 ‘붉을 적(赤), 베 포(布)’를 가르치며 들려준 말이다. 강 건너는 바로 창녕군으로, 3개 군(郡)으로 통하는 요충지여서 조선시대 역참(驛站)용 마필(馬匹)이 있었고, 필마(匹馬)의 선비가 쉬어 넘던 곳으로, 쉽게 필재라 부르게 됐지만 본래는 우륵재이고 재 아래 동네도 우륵지, 우륵계를 거쳐 우르리로 불린다고 했었다. 강을 굽어보는 우륵재 등성이에 우륵의 자취가 있었던 건 아닐까?

현재 지명 적포(赤布)는 홍수철에 강물이 붉은 배를 펼친 듯하여 생긴 이름인데, 임란 때 홍의(紅衣)장군 곽재우 선생 휘하 장령들이 장군의 붉은 전포(戰袍)와 똑같은 옷을 번갈아 입고 적을 교란한 데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 이곳은 사서에 기록된 홍의장군의 여러 전적지들 가운데에 위치한다.

우륵이 나중에 신라로 갔을 때, 그의 천재를 높이 산 진흥왕의 배려로 제자 육성과 신라의 극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만년에는 충주(忠州) 남한강의 산수를 벗하며 그가 탄주(彈奏)한 가야금(琴)의 선율이 여울진 곳에 ‘탄금대(彈琴臺)’란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듯이, 우륵이 선유하는 편주가 늘 와 닿는 이름없는 강변을 지칭할 때, 사람들이 손쉽게 우륵의 이름을 붙여 불러, ‘우르리’란 이름을 남겼을 것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큰 나라 임금의 요청으로 가야 각국을 위한 12개의 노래를 지은 일은 우륵의 생애에 큰 영광일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는 가야

전역으로 취재와 탐미와 연주여행을 다녔을 것이고, 간 곳마다 그의 발자취를 남겼을 것이다. 예술적 정감에 젖은 사람들이 미학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심미의 발길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 다르지 않을 것이고, 그런 여로의 발자취는 훗날에도 예술사에 살아 숨쉴 것으로, 우륵의 예술혼은 그의 고향이 아니어도 가야 곳곳에서 느껴지고 찾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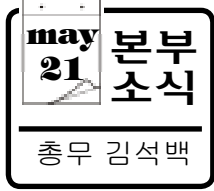
육로를 마다한 우륵이 뱃길을 택할 때도, 손쉽게 배를 띄운 곳은 성열현 그의 집에서 지호(指呼)의 거리라 할 이곳 우르리였을 것이다. 상류로는 가실 왕의 대가야에 이르고 하류로는 남해까지, 가야 여러 지역으로 물길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륵의 배는 이곳에서 떠나고 이곳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우르리는 우륵의 이름에서 그 유래를 찾아야 할 것으로, 경남 지성사의 전통을 규장하고 있는 마고인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

충동창외 바둑대외소식

지난 6월2일, 마산 불종거리 정석기원에서 개최한 전국동문바둑대회에서 14명이 참석한 우리 21기가 최다참가상(상금10만원)을 받았다.

乙組에서 대국을 가진 우용태 동문이 우승을 찾아하여 상금 20만원을 받는다 하면, 甲組 박소학 동문이 감투상(상금4만원)을, 그리고 丙組 이영부 동문이 감투상(상금3만원)을 받아 21기의 기력과 결속력을 과시했다.





이 날은 일찌감치 회장과 함께 흥화집에 도착하니 평소 선착순 참석자인 광영식, 김순택 동문이 막 참석하여 자리를 잡는 중이라 반가운 악수들을 하는 사이 어느새 우르르 동문들이 거의 참석하여 오후6시30분에 회장의 반가운 인사를 시작으로 5월 월례회를 개최하다. 마침 김범영 동문이 모처럼 참석하여 답례인사 속에 박수를 받았으며 지난번 서울, 부산 초청 지리산 삼신봉합동산행에 배종길 본부 산악회장과 부인이 직접 함께 참석하여 성심성의껏 수고하신 노고에 큰 박수를 받았으며 조금 늦게 참석한 황희생 동문이 차녀결혼식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축하해준 보답에 금20만원을 협찬하여 또다시 박수를 치다보니 손바닥운동 좀 했으리라 믿습니다. 이날은 좋은 장소 선택 타인지 회장단의 노력 타인지 45명이나 참석하여 주방에서 우왕좌왕으로 총무가 챙겨 도와주었는데도 산호동 김성규 동문이 국이 늦게 들어와서 밥을 못 먹었다고 하니 마음이 아팠으나 참석동문 거의가 잘 잡수시고 스트레스도 좀 푸는 길로 만족하였다니 총무가 위안이 됩니다.

참석자

강동균 광영식 구해룡 김기정 김기태 김방태 김범영 김순택 김선규 김성규 김순철 김석백 김영 김용인 김정수 김준형 김태욱 박소학 박영환 배종길 변재국 변중일 손기홍 손동개 송인창 신창한 여경현 우용태 이대우 이무일 이성환 이영부 이종섭 이종량 장영의 전기용 정안정 정의건 정정용 정창봉 제갈선광 조남규 조정웅 지해경 황희생 나길보(부산) -이상45명 -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수 입			지 출		
적 요	금 액	비 고	적 요	금 액	비 고
회비	500,000	최광수 15만원	식대	798,000	흥화식당
		여경현 10만원	회보	210,000	회보인쇄비
		이무일 전총의 지해경 김범영 박소학 각5만원		61,500	발송비
			경조사	100,000	황희생 혼가
		협찬	150,000	전국합동산행 10만원 총동창바독대회 5만원	
찬조	200,000	황희생 혼가			
			수당	150,000	총무
수입계	700,000		지출계	1,469,500	
전월이월	6,029,277		차기이월	5,259,777	
합 계	6,729,277		합 계	6,729,277	

본부동창회 계좌 : 김석백(국민은행) 651401-04-343779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
일 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며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하는
'세 가지 여유로움'이
있어야한대요.

그것을 흔히들 "3여(三餘)"라고 말하는데 지난 5월 22일은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3년도 재부마산고 동창회 정기총회 겸 우리 21기의 월례회 날로 받아 검사검사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하루가 연기된 탓이었는지, 아니면 '3여(三餘)' 중 한 두가지가 자유롭지 못해서였는지 보여야할 친구들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더했다.

개근상 대상인 김준태는 본인의 모임 역할로, 윤성업은 월말 세무업무의 폭주로 불참한다는 고마운 메시지로 불참 연락을 보내왔다.

우스갯소리로 '백수(白手乾達)'의 안부를 물으니 '과로사로 죽었다.' 더라는 얘기도 있지만 우린 백수가 있다고 해도 할 만큼 일도 한 '화백(화려한 백수)'이 아닐까도 싶는데 모두가 '3여'를 누리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니.....

모임에 뜻밖에도 3학년 2반에 있던 이정이 친구가 나타나 이런 저런 연유로 지금까지 불참했지만 앞으로 꼭 참석하겠다고 다짐했다. 당구를 700도 쳤고,

바둑도 3급 수준이라며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파 했다.

가을의 해외여행과 합동산행 후일담도 좀 나누고 싶었어나 총회를 마치고 뽀뽀이 흠뻑이 흠뻑이 나며지 몇 명만 인근 맥주홀에서 동기회 발전에 영양가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주고받다가 뒷마무리를 하고 헤어졌다.

참석자(16명)

강신평 권기욱 김덕조 김수곤 김효석 나길보 남원일 박영섭
박진형 박청길 송길영 이장우 이정이 이의승 정현경 최진화

회보제작에 협찬해주신 재경 재부동창회에 감사합니다.
각지역 신임회장단은
2013년도 회보제작분담금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담금 내역 : 재경동창회 : 100만원
재부동창회 : 60만원

김학영의 가림삼방 :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khyO21>

편집인의 사진블로그 : <http://wing91.tistory.com>

산행도 즐겼고,
만남도 즐겼다

정현경
(1)

지난 5월 15~16 양일간 마산·부산·서울의 친구
들 30명이 지리산 삼신산과 황매산을 산행과
철쭉 축제 나들이에 나섰다.

▶5월15일, 11:30분. 단성 IC에서 먼저 도착한 마산의 구
해룡, 김방태, 김석백, 김용인, 배종길, 변재국, 이아인, 이진부,
장정치, 정안정, 정의근, 정정용, 조정웅, 지해경, 최광수, 조현
점(배종길 Wife)을 부산의 김성광, 이의승, 정현경, 조영민, 최

진화가 만났고 잠시 후 서울의 권영집, 김우철, 문
동영, 박박중, 서종성, 조용석, 조재호, 주유삼, 허
호 친구들이 합류하여 인근의 ‘목화추어탕’ 식당에
서 반가운 인사와 함께 점심요기를 하고 13:20에 출
발하여 14:00에 숙소인 마고22기 후배가 경영한다
는 청학동 ‘청학펜션’에 도착하여 여장을 정비하고
출발 장소인 청학 산장까지 꾸불꾸불 한 산길을 30
분가량 이동했다.
논어(論語)의 용야(雍也)편에 보면,
지자요수(知者樂水)요/
인자요산(仁者樂山)이라/ 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에 밝아 물
이 흐르듯 막힘이 없으므로
물을 좋아한다고 한 것이고,
어진 사람은 의리를 중히 여겨
그 중후함이 산과 같으므로
산을 좋아한다고 하여
요산요수(樂山樂水)의
원래 뜻으로 전하고 있으나 보통
산수의 경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이라.

산길을 한참 올라가다 보니 청학동 마을은 지리산
산골의 서당이 있는 전통을 고수하는 유일한 마을로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놓은 듯 한 아름다운 자연과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
이 포근함과 신비로움을 느껴지게 했다.
최진화는 이런 곳에 살면 저절로 도인이 되겠다고
산세에 감탄했다.

14:30, 배종길 친구가 출발에 앞서 삼신봉 정상에서
U턴 할 예정이므로 무리가 따를 경우에는 코스를 조정하도록 당부도 잊지 않았다.

삼신산 산행 길 입구의 둥근 돌비석에 새겨져 있는 글이 마음에 담아졌다. <만
고강산 유람할 제 삼신산이 어디메뇨. 우리 겨레의 가슴 깊이 새겨 있는 삼신산
불행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 쫓불 켜고 향 피우며 기복하던 산>이라 새겨
져 있었다.

한 참의 오름길쯤에서 허호가 오늘 산행에 바쁘다는 이유로 동참 못하는 친구들
에게 ‘노다공소(勞多功小;매일 분주한 것 같으나 성과는 적다)’의 안타까운 의미
를 전해 주고 싶다고 했다.

산의 신령이 깃들고 명산다운 포용력과 뽐어내는 정기 깊은 산세, 길게 뻗은 산
허리 그 아름다운 삼신산의 비경이 우리를 불러들인다.

차근히 오르는 비탈길은 인위적 손길이 닿은 계단이 많았지만 오름길이 예사롭지
는 않았다. 잠시나마의 평지길이 없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바윗길의
연속으로 초행자들에게는 피로를 더하는 것 같았다. (다음호에 이어짐)

하고 얼른 보는데 팔복이란 놈은 죽어도 싫다며 울기까지 했다.
 친구 부인은 미안하기도 하여
 “팔복아 그러지 말고 좀 보여 드러라”하며 달랬는데
 팔복이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싫어 , 엄마꺼나 보여줘!”
 “...”

그리하여 몽달이가 뜻밖에 눈요기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날 밤 팔복이가 없어도 구경할 것 다하고 재미도 좀 좋았다. 헤헤!!
 이러는 우리가 닭살이라고 흥 잡힐까 두렵다.

이참에 난센스 퀴즈 하나. 닭의 나이를 닭살이라고 하는데 그럼 비둘기의 나이는
 몇 살이게? 궁금하면 500원씩!

다음날 환호해맞이 공원과 시립미술관을 구경하고 죽도시장에서 점심을 먹고
 오어사로 발길을 옮긴다. 오어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의
 말사로 신라26대 진평왕(579-632)때 창건 하였으며 당시에는 恒沙寺라 하였다고 하며 이후 신라 4대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자장, 혜공, 원효, 의상 등의
 고승이 수행하던 유서 깊은 고찰이라 한다.

따라서 오어사의 이름도 원효대사와 혜공선사가 이곳에서 수도할 때 법력으로
 개천의 물고기를 생환토록 시합을 했는데 그중 한 마리는 살지 못하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힘차게 헤엄치는 고기를 서로 자기가 살린 고기라 하여 나“오”
 고기“어”자를 써서 오어사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

이곳 유물전시관에 들어가면 원효대사의 삿갓(신라시대 7세기경)을 감명 깊게
 만날 수 있다.

연못위의 구름다리를 건너면서 행여나 물고기가 아직 살아 계시는지 아무리 둘러
 봐도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서둘러 귀가를 서두른다. *

동문동정

- ♣ **곽호남**
 동문의 새주소입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포스코건설
 플랜트해외사업그룹 (우)790-704

캐나다 밴쿠버 거주 남수 동문의 새
 주소입니다.
 Namsoo Kim
 #1601-1155 The high st.
 Coquitlam BC, Canada
 V3B 7W4

- ♣ **김남수 동문**

원고접수 E-mail : chegal44@gmail.com

수미산의 동쪽중턱에 살면서 동방세계를 수호하는 신이며 특히 불법을 수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안민의 신으로 선악을 관장하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며 늘 인간들을 보살피고 인간들의 땅을 지켜준다.

포항 내연산 12폭포 (4)

장정치

맞은편에는 서방광목천왕이 계시는데 수미산의 서쪽을 관장하며 수미산중턱 백은타에 사시며 몸은 여러 가지 색깔로 장식되며 입을 크게 벌려서 큰 소리와 중변으로 온갖 나쁜 현상을 물리치고 눈을 부릅뜸으로서 그 위엄이나 나쁜 무리들을 몰아낸다고 한다.

죄인에게 심한 벌을 내려 매우 아픈 고통을 느끼게 하는 가운데 죄인으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고 道心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근본이라 하고, 그 옆에 계시는 북방다문천왕은 수미산의 북쪽을 수호하며 사천왕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신이다. 수미산북방 수정타에 머무르면서 불국도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킨다,

항상 부처님 계신 곳을 수호하며 불법을 빠짐없이 듣는다 해서 多聞天이라 부르게 되었고 항상 재액을 소멸시키고 여의주로 신통력을 발휘하여 중생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한다,

사천왕은 세계의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고 불법을 수호하며 불도를 닦는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한다. 이는 고대 인도의 우주관에서는 세계의 중심에 상상의 산인 수미산이 있다고 믿었는데 수미산의 위로는 하늘세계가 펼쳐진다고 믿었고 사천왕은 수미산 중턱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며 인간세계와 하늘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하는 네 명의 천왕을 상징한다.

사천왕의 내력을 쪽 읽어보고 메모를 하다 보니 시간이 엄청 걸렸다. 속소로 돌아와 공짜온천을 맘껏 즐기고 오붓한 밤을 보내기 위해 수작을 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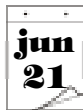
이야기 중에 어느 날 몽달이가 딸 일곱에 막내로 아들이 하나 있는 친구 집에 놀러를 갔겠다. 마침 친구는 없고 몽달이는 어렵게 얻은 아들이 기특하기도 하여 “어디 이놈 고추 좀 보자”

7쪽으로 이어짐 -

2013년 6월 월례회 안내

월례회

일시 : 21일(금) 오후 6시30분
장소 : 아리랑청국장보쌈(224-5722)
마산전화국 뒷편 네거리



부인회

일시 : 21일(금) 12시 30분
장소 : 하성이불(223-6160)

